

김경 칼럼

‘집권 후반전’ 文정부... 초심 새기며 국정 운영해야



본사 회장

문재인 정부가 9일부터 집권 후반기에 들어섰다. 역대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을 만들어 낸 광장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숨 가쁘게 전반기 2년 반을 내달려왔다.

이제 집권 후반기는 숨을 고르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더욱 전력할 때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목표에 논란은 따르지 않았지만 성과도 적지 않았다. 특히 법치를 어기고 국정을 농단한 전직 대통령 탄핵 등 적폐 청산을 통해 고질적 병폐를 제거하는데 전력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격차를 완화했고, 주 52시간 노동제가 안착 단계에 들어간 사업장에선 과거 누릴 수 없었던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받기는 이들도 많아졌다.

전쟁 위험을 줄이고, 국가의 최고 기본 책임인 시민 안전과 평화를 증진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 이벤트였다.

그러나 불안한 경제현황과 민생은 성과를 반감시킬 정도로 부정적인 요소다.

여러 경제지표가 일단 우울하다. 수출은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2% 달성도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세계경기가 급격히 둔화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다만 경제운영의 비판에 자유롭지가 않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고용을 늘린다고 늘렸지만, 고용의 질은 나빴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다.

슈퍼예산을 편성하여 저성장 흐름을 제어하려 하지만 기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결국 민간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제조업 강화를 촉진하며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 혁파에 나서라는 처방이 따른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 프로세스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이슈를 수면 위로 밀어 올린 ‘조국 사태’는 빼 아꼈다. ‘기회 평등·과정 공정·결과 정의’ 명제는 퇴색되어 정부에 큰 상처를 남겼고, 공정 개혁을 특별한 국정 과제로 안겼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난제들만 수북한 가운데 후반기 출발선에 다시 선 문 대통령의 각오는 남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언급한 경청과 성찰, 그리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는 그래서 주목된다.

그 다짐을 반드시 실천하길 기대한다. 특히 여권은 당·정·청의 일체감과 응집력을 높이고 보수 야당까지 포함한 의회와 끈기 있게 소통하고 타협하여 개혁 입법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社說

국민 우롱한 ‘전두환골프’ 당장 재판 출석해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은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또다시 폭발시켰다. 서대문구 구의원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전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표 명령과 관련된 질문은 일관된 변명을 되풀이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내가 왜 발표 명령 내렸어? 발표 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없었는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해?”라고 주장하는 당당한 자세가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은 진행형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는데 영상을 보면 그의 건강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극히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단 한 번도 제 얘기를 되묻거나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정확하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임부대표의 전언은 재판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5·18 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말쑥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자 5·18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성명을 내고 “국민과 역사를 보란 듯이 우롱하고 있는 전씨의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씨에게서는 최소한의 양심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전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령·건강·장거리·알츠하이머가 이유였다. 하지만 골프를 제대로 치면서 민감한 질문에도 또렷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재판 불출석 사유는 거짓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만큼 재판부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출석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전씨 스스로 증명해보인 셈이다. 이제 다음 재판부터 출석을 시켜 진행해야 한다. 국민과 사법부를 더 이상 농락하는 것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

전씨는 여전히 자신의 명백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 왜곡에 앞장서며 5.18희생자들과 광주 시민, 전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표현했다”는 임부대표의 전언은 재판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독자 기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들, 인식변화 필요하다



류 시범
함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운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운창호법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운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 된 것이다.

경찰에서도 이에 발맞춰 운창호법 시행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강화 개정법률 홍보 및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 야간과 심야 시간대 집중됐던 단속활동 외에도 단속 시각지대나 다른 없는 대낮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교통경찰 외에도 기동대 및 지구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 횡수와 시간을 늘려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원인이 가장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이러한 단속활동 강화에 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다소 감소 추세에 들었다가 최근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

으며 음주운전 사망자의 경우 금년 현재 190여건에 달하고 있어, 경찰에서도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우침이나 반성하지 않고 재범우려가 있을시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단순히 “단속 당하고 안 당하고”의 문제가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큰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귀중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임을 운전자들의 깊은 의식적도 요망된다.

독자 투고

무단횡단의 유혹에 넘어 가지말자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다.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보행자들을 지켜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단횡단은 보행자 신호가 아닌 빨간불에 ‘빨리 길을 건너’라고 유혹하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차가 없으니 지금 길을 건너”라며 보행자를 유혹한다. 이런 유혹에 빠질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지난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횡단 사망자의 40%가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하였다. 특히,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8.2%로 정상적인 도로횡

단 사고의 치사율 4.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무단횡단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10조 2항과 5항에 따라 단속되며,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무단횡단 시 2만원, 횡단보도가 없는 곳 무단횡단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무단횡단 금지펜스 등 무단횡단방지 시설물 등이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구간이 설치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근절하기 위한 보행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행자라고 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안일한 의식은 버려야 한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을지라도 차가 사람을 치면 항상 일정 비율로 운전자 과실 판결이 내려졌지만, 최근 교통법규를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도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순간의 선택이 후회스러운 그때로 기억될 수 있다.

비뺄수록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교통신호를 지키고, 무단횡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성숙한 광주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김대원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재빌딩 5층

회장	김 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박중수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선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아이에게
꿈을 위해 주게요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